거룩을 깨는 유출 불감증

(레15:1~33)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3.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을 깨는 유출 불감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거룩을 깨는 유출 불감증'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TV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본적이 있는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고민의 공감정도를 방청객이 투표를 해서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표를 받으면 물리치고 몇 주를 계속해서 일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상금과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그날 두서너 명이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잘 생긴 남자청년이 나와서 고민을 얘기하는데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 친구도 같이 나왔어요. 여자 친구도 예쁘게 생기셨어요. 이 여자친구가 언제부터인가 남자친구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별 걸 다 가지고 나와서 고민이라고 얘길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겠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왜 뽀뽀를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뽀뽀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회자가 여자친구에게 '왜 그렇게 뽀뽀 한 번 해주지 않느냐? 결혼할 것이고 남자친구가 좋지 않으냐?'라고 하니 '여전히 남자친구가 좋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입맞춤은 못하겠다.'고 해서 이게 진짜 뭔가 싶어서 듣는 사람도 고민이 됩니다. 이유를 말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트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인데 남

자친구가 입을 가리거나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또 트림을 하는 경우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합니다. 그 트림을 한 뒤에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도저히 입을 맞추려고 하면 그 악취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서 입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트림이 향기를 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트림의 냄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나이가 아닙니다. 여자친구도 트림의 냄새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때의 트림의 악취가 기억에 되살아나서 그 트림을 한 그 입에는 입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여전히 좋아하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맞춤은 당분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그 기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이유를 몰랐다가 공개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니 얼마나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찾을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출이 뭡니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이 부정함을 발생시킴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이 나타날 때는 그 부정함을 씻는 정결예식이 필요하고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고 유출병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의 증상을 비유로 드셔서 선민이 영적으로 유출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말이 희브리어 '조브'라는 단어인데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이고 흘러나오는 병을 뜻해요. 여기서 유출이라는 것은 남녀 성기로부터 정액이나 여성들의 월경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흘러나오는 고름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점액 같은 것을 다 일컬어서 유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의학적으로 말할 때 성병과 관련되어 있는 요도염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의학적 원인을 밝히고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 무절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태도나 습관에 대해서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선한 성생활에 대한 교훈은 따로 나옵니다. 이 유출병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비유를 통한 설교말씀입니다. 신체적인 유출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유출병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유출병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막의 근처에 접근도 못할뿐더러 집안에서 식기를 만져도 안 되고 다른 물건을 만져도 안 되고 여자가 누었던 침대에 접촉만 해도 다 부정해 집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을 깨버려야 하는데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유출병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신체적인 유출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유출병으로 비유되는 영적인 상태, 인격적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상태를 선민들이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출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같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병은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살므로 저주의 상태이고 더러움과 불결함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는 인간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진영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유출병은 진영바깥으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선민의 진영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정결예식을 통해서 부정함을 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아담타락이후의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존재의 상태가 나병상태였다고 하면, 유출병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도록 부름 받은 선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것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존재의 상태가 바로 유출병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골탈태하지 못하고 나병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유출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유출병이 나타나지만 문제는 예를 들었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없는 곳에서 악취가 나는 트림을 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전히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예쁘다고 와서 입을 쪽쪽 맞출 것인데 여자친구가 있는 곳에서 트림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출병에 걸려 있습니다. 선민에게서 나타나는 유출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예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거룩함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 고린도 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춤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입 맞추지 않으면 못 견디실 만큼 우리가 예쁘기를 원하시지만 유출병 상태의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실 수가 없고 입을 맞춰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출이라는 것이 뭐냐?
잠4:23절에 보면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왜 마음을 지켜요? 생명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고 마음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라는 얘기를 주님께서는 마15: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유출병의 내용입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십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시니 지독하게 악한 사람을 예로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수용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면 다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유출병으로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 간음이라고 하니 여자하고의 간음만 간음인줄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자체가 이미 간음의 상태이고 이 상태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도둑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확실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때처럼 자연인의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으면 다 유출병의 상태이고 악취를 풍기는 트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입을 맞추셔서 예뻐하시면서 함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출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돈을 집어넣으면 친구를 만나서 웃기도 하고 친구의 비위를 맞춰주기도 하고 친구에게 뭘 요구하기도 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막을 보면 돈을 좋아해서 그 친구를 사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로 사귀지 않고 돈 있는 친구들 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잠언의 말씀대로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인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가 있을 때는 내 판단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돈이 들어가 있으면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불만하고 소원을 갖게 되고 계획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무엇을 들여놓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놓았을 때는 돈 자체는 인격이 아니므로 돈으로 인해서 자극되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 들였을 때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이 악취를 풍기는 것들을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도 유출병에 걸린 것이고, 판단을 해도 유출병에 걸린 것이고, 소원을 해도 유출병에 걸린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감정의 표현도 유출병에 걸린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입을 맞출 수 없는 상태의 더러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돈이나 결혼이나 취직이나 그 마음에 들어 있는 것은 시간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일 년 동안은 취직이었다가 취직이 되고 나면 또 승진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여간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더러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선민들에게 있어

서 이 더러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유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금 나병환자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비유로 말하자면 몇 년 전에 미국의 MS MBC 투데이 쇼라는 프로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13살짜리 중학생 소녀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순진한 이 여학생이 마음이 조급해지자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합니다. 자기의 상반신을 과도하게 노출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그 남학생의 스마트폰으로 보냈는데 마침 그 남학생의 스마트 폰을 친구가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그 사진을 보게 되면서 온 학교에 그 사진이 다 퍼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여학생의 상반신 사진이 유출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에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그 후회와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만 자살을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놓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자식에게 '야, 너! 앞으로 취직을 잘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다면 이렇게 말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벌어서 잘 살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누구나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나의 나체사진이 만인에게 유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 내 인격의 가장 추한 모습으로 인격의 나체사진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불감증에 걸렸어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생각을 말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살고 나로부터 나오는 판단으로 사는 것이 자살충동을 느껴야 마땅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자친구와 도저히 입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악취를 풍기는 트림을 자기도 모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는 트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마음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십년 뒤에는 어떤 일을 이루고, 십년 뒤에는 천명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마음에 품고 목회에 매진하는 것이 마치 13살짜리 딱한 어린소녀가 자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유출된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되고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얻기로 결정하고 소원하면서 그 소원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며 추진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로부터 나오는 판단과 생각과 소원과 계획 때문에 내가 지금 콱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선민이 나병의 상태로 회

귀하려는 위험성을 유출병이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생각, 하나님께 받은 판단, 하나님께 받은 소원이 아닌데 나로부터 나오는 소원과 계획과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될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인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사업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사업의 주어진 상황의 호불호를 판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면전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입을 맞추고 예뻐하실 수 없을 만큼 악한 냄새를 풍기는 트림을 하는 것이고 자살충동을 느껴야 마땅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나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나오는 샘의 상태가 하나님이 첫 번째 가치요,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을 모셔 들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이 기쁨과 만족의 이유요, 행복의 이유라고 여겨서 그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것이 있고 싶어서 소원하고 그것이 있다고 기뻐하면서 감정이 표현되고 있으면 유출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예뻐하실 수 없는 입을 맞출 수 없는 트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내 스스로가 유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잊어서는 선민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궁극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고 꿈의 궁전과 같은 평강이 지배하는 거룩함의 상태로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마음에 걱정을 한다면 그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상태가 유출병으로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유출의 근원을 죽여야 합니다. 그 근원이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담고 있는 내 인격자체가 죽어서 빨리 유출이 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정화되고 우리 마음은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이 땅에서는 오직 유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와서 방출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출병은 선민에게 있어서 나병상태로의 회귀를 알려주는 적신호입니다. 내게서 흘러나와서 유출되고 있는 내용을 살피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소원이 아니라면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유출병의 더러움으로부터 날마다 해방되어 사는 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병상태로의 회귀를 알려주는 적신호가 되는 유출병이 내게서 나오는 판단과 생각과 소원과 계획과 불만과 걱정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유출이 끊어진 부끄러움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